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163호)

마이다스 그린SRI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년 07월

Fund Facts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며, 주식 투자시 재무적 기업평가 방식과 비재무적 기업평가 방식(그린산업/SRI)을 함께 활용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9-04-20
펀드 규모	16 억원
총보수	A1- 1%선취 + 연0.90%/C1-연1.54%
환매수수료	A1-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90일, 이익금의 30% C1-90일미만 이익금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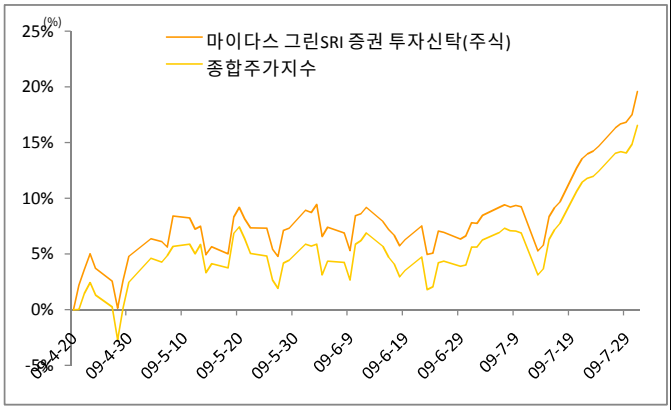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그린SRI 증권 투자신탁	12.15%				19.58%
종합주가지수	12.03%				12.76%
초과수익률	0.12%				6.82%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9.04.20~2009.07.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7월 한 달간 펀드수익률은 12.15%였으며,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은 12.03%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는 수익률이 양호했던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타 경기 민감주인 철강, 반도체 업종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는 우리금융, 녹십자, 하이닉스, 넥센타이어 등과 같은 보유주식의 주가흐름이 양호하였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7월 주식시장은 2분기 실적 시즌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예상치보다 높은 실적), 외국인들의 연중 최대 규모 순매수 등 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1,50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비용절감 효과 등으로 어닝서프라이즈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들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은 작년 하반기 급격한 금융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상반기 중국 중심의 경기회복에 이어서 선진국의 자산 가격 안정화와 소비 회복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긴축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논란이 있으나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머징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저금리 지속 현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과 더불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은 은행, 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개별 화학, 통신주, 음식료 업종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현재펀드에서 주식편입비율은 90% 초반에서 95%까지 움직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목선택

주식편입비율의 80% 이상은 비재무적 요인 평가 기준 40%(그린산업/SRI)와 재무적 요인 평가 기준 60%를 함께 적용하여 선정한 그린SRI유니버스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당사 리서치를 통하여 선별한 트레이딩포트폴리오를 통해 초과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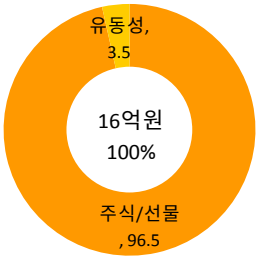
1 그린SRI유니버스

7월말 현재 그린SRI유니버스 투자비중은 주식투자금액의 약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 그린SRI유니버스 중에서는 우리금융, 녹십자, 하이닉스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엔씨소프트, LS, 효성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성광벤드, 현대백화점, 녹십자 등을 신규편입 했으며 현진소재, 한진, 대한전선, 한진중, 한진해운, 대우인터, 대웅제약 등을 제외했습니다.

2. 트레이딩포트폴리오

그린SRI유니버스 미포함 주식은 주식투자금액의 약 10%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 넥센타이어, 평화정공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코오롱건설, SKC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평화정공, 키움증권 등을 신규편입 했으며 SK네트웍스 등을 제외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55.40%)

1. 삼성전자
2. POSCO
3. LG전자
4. KB금융
5. 한국전력
6. KT
7. 신한지주
8. 현대차
9. 현대중공업
10. 기업은행
11. LG디스플레이
12. SK에너지
13. NHN
14. 현대모비스
15. 우리금융
16. SK텔레콤
17. 현대제철
18. 삼성중공업
19. 삼성화재
20. 삼성전기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